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당권을 향한 주자들의 움직임도 비빠졌다.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손학규 삼입고문의 '빅3' 대결에, 채신을 내세운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김효석 의원의 출마를 준비중이다. <왼쪽부터> /연합뉴스

민주 당권주자들 “내가 DJ 계승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물밑 경쟁이 시작되면서 당권주자들간 노선 경쟁은 물론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계승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8일 김효석 의원의 당권 도전 공식화와 함께 이번주부터 당권 도전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같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경쟁 = 대부분 당권 주자들이 각각 진보적 가치를 담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진보 경쟁' 양상으로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는 '진정한 진보'를 슬로건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대한 진보론'을 내건 정동영 삼입고문은 10일 '2010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은 '따뜻한 진보'를 슬로건으로, 천정배 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전당대회 앞두고 '진보' 노선 경쟁도 동교동계에 대한 구애 활동 본격화

다만 김효석 의원은 “이념 논쟁보다는 당 운영 현대화와 정책 정당화 등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아직 노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9~10일 정계에 복귀하면서 당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DJ 계승 경쟁 = 이번주부터 김 전 대통령 추모기간이 시작되면서 DJ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적통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10년간 이론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 복원과 정권 재창출을 지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에서 'DJ의 계승자'라는 타이틀은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호남의 전

통 지지층을 끌어안는 현실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10일 서울 흥동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김대중 자서전' 출판기념회와 18일 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에는 정세균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 물론 정동영·박주선·김효석·천정배 의원 등 유력 당권 주자들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추모기간 직전인 9일께 지난 2년간의 춘천 생활을 접고 정계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도 김 전 대통령 1주기를 전후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주자들은 저마다 김 전 대통령과의 갖가지 인연을 강조하며 DJ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 책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노갑·함광욱 전 의원 등 김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를 향한 각 진영의 '구애'도 뜨겁다. 손 전 대표 측에는 범동교동계의 박양수 전 의원이 조직적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동교동계 핵심 인사는 8일 '각 진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교동계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향후 중지를 모아 특정 후보에 대한 물밑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진영 관계자는 “동교동계의 영향력이 예전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DJ의 상징성으로 때 때 간접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후보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故 노무현 묘소 참배 '친노 꺼안기'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가 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날인 지난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부인 최혜경씨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정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두 전직 대통령을 묘소를 잇따라 찾는 것은 그들이 남긴 민주주

의와 인권, 남북관계 발전 등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특히 이날 봉하행(行)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기반 중 일부로 분류되는 '친노(친노무현) 486'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주변 인사들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두 전직 대통령께 인사드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대선참패·민주 탈당' 공식 사과

민주당 정동영 삼입고문은 8일 2007년 대선 참패와 민주당 탈당 등 정치적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대 출마를 앞둔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동영의 반성문-저는 많이 부족한 대통령 후보였 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 패배와 관련, “최악의 참패로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10년 동안 국민이 키워준 개혁과 진보의 힘을 빼앗긴 장본인”이라며 “패배의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다”고 자책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재보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당과 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자신의 정치역정에 대해 “선배들이 오랜 투쟁과 희생을 통해 힘있게 올라온 가파른 길을 너무 쉽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신념과 소신을 추구하는데 거침이 없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 역동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했다”고 자성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효석 “뉴 민주당 플랜 실현” 전대 출마 선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8일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공허한 진보논쟁이 아니라 '기회, 정의, 따뜻한 공동체'라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생활정치 현장에 뛰어드는 생활정치 혁명”이라며 당권 후보를 가운데 처음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뉴민주당 플랜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민주당이 안심

하고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진보'를 새 노선으로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진보니 중도니 하는 논쟁 자체는 낡은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시절 민생은 외면한 채 이념논쟁에 몰두해 민생에서 멀어졌던 일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 돼야”

16개 시도의회 협의체 발족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직 차지에 반발해 전국 협의회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일반 광역의원 출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전남 등 5개 교육위는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또 선언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권 레이스 시작... 경선캠프 영입전 '후끈'

전대 혼전 양상 예상 '전략통' 여의도 속속 귀환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이 경선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가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권주자들이 조직 및 전략통을 영입하는데 사활을 걸면서 이른바 '선수'들이 속속 여의도로 귀환하는 모습이다.

우선 정세균 전 대표 진영은 의형사 가장 많은 인사가 몰리고 있다. 김진표 전 최고위원

이 캠프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김민석 전 최고위원, 김교홍 전 사무부총장이 전략 및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최재성, 강기정 의원과 함께 우상호, 한병도 전 의원 등 원내외의 주류 인사들이 캠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맞서 정동영 삼입고문 진영에선 영동 전 전 의원이 좌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풍(盧風)'을

점화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조직 실무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직을 총괄했던 김낙순 전 의원이 맡고 있으며 양형일, 노웅래, 정정래, 김태라 전 의원 등도 정 고문을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에서는 박영선, 최규식 의원 등 전 정동영 의원 그룹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 고문은 영남 민주화 세력의 상징인 이강

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여기에 조직 담당으로 당료 출신으로 조직통인 박양수 전 의원이 가세했다.

또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도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에서는 이준석, 이찬열, 전해숙 의원 등이 손 고문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박주선 전 최고위원 진영에선 동교동계의 조재환 전 의원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구 민주계인 김성순, 김충조 의원과 문학진, 김부경 의원 등도 박 의원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 의원은 원내 386 그룹과 중도성향 의원들의 물밑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낙연 의원 등은 조만간 김효석 의원 지지 선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사·지국 전화번호 안내

Great CHALLENGE

독자와 함께하는 광주일보

[지 사]		[지 국]			
지 역	지사전화	구역	지역명		
목포시	276-9200	동구	남평	222-9440	학동, 문림동, 소태동, 지왕동, 빌림동(일부), 용산동, 월남동, 내남동, 겸사
여수시	686-8584		동명	222-9054	동명동, 장동, 서석동, 지산동(일부), 조대, 조대명원, 전대명원, 전남여고, 중앙도서관, 동구형
순천시	746-8111		동부	225-6001	산수동, 지산동(일부), 풍향동(일부), 두암동(일부), 계림동(일부), 범일, 무등파크호텔
광양시	792-8111		중앙	222-1896	금남로1-3가, 송정로1-3가, 광산동, 궁동, 대의동, 불로동, 황금동, 남동, 호남동(일부), 금동, 금남지하차도, 통부경찰서
나주시	332-5544		충진	224-8212	금남로4-5가, 송정로4-5가, 대인동, 수기동, 북동, 호남동, 송금지하차도, 광주이고
나주(영산포)	332-7764		광천	366-8375	광천동, 내남동(일부), 유촌동, 유덕동, 농상동(일부), 안평(일부), 유촌동, 덕흥동, 시외버스터미널, 기아자동차
강진군	434-6830		상무	372-2352	쌍촌동, 화정동, 내남동(일부), 영주체육관, 상무시장, 서부서비스
고흥군	842-2121		서림주	369-0583	월산동(일부), 농성동(일부), 양동(일부), 상록회관, 금호생명빌딩, 서구형
곡성군	362-8111		윤천	371-9818	쌍촌동, 금호동, 매월동, 미백동, 금호지구, 분부세관, 호남대
구례군	783-8111		치평	376-6511	치평동, 미곡동, 상무지구, 시청, 한국은행
담양군	383-8116	풍림	682-8112	풍림동, 금호동(일부), 풍림지구, 금호지구, 공구상가, 농산물시장	
무안군	452-8535	화정	375-9662	화정동, 농성동(일부), 배운동(일부), 내남동(일부), 무등시장, 관덕교, 상공회의소, 시교육청	
보성군	853-1190	남구	남부	652-0175	범림동, 안림동, 금동(일부), 남동(일부), 봉산동(일부), 학1동, 남평주시장, 기록보존관, 병무청, 라면요천
신안군	243-3758		백운	673-4698	구룡, 사동, 서동, 월산1, 2, 3동, 백운동(일부), 양동(일부), mbc, kbc, 광주공인, 사적공원
영광군	351-0055		봉선	675-5530	봉선동, 주월동(일부), 남부경찰서, 남구형
영암군	473-2340		진월	673-1600	주월1동, 진월동, 송암동, 송하동, 노대동, 양과동, 대촌동, 광주대, 송암공단
완도군	554-6677		동평	264-2012	두암동, 풍향동, 문화동, 기화동(일부), 동강대, 두암시장, 교역대학
장성군	394-0400	문흥	267-4748	문흥동, 오치동(일부), 기화동, 기화동공공시장, 교도소, 문흥지구	
장흥군	863-8822	북구	북광주	525-3761	운안동, 동림동, 신안동(일부), 임동(일부), 증운동, 덕흥동, 무등경기장, 증원지구, 증원마을
진도군	543-0100		신안	512-1732	신안동, 임동(일부), 송흥동(일부), 일신방직, 북광주전화국, 임동성당, 평화시장, 병풍대, 신역원, 현대백화점
함평군	324-8111		양산	571-7658	양산동, 연제동, 용두동, 본촌동, 연초제초장, 본촌공업단지
해남군	537-6767		오치	266-7601	오치동, 삼각동, 마곡동, 일곡동, 서산동, 기계공고, 송일고, 일곡지구, 북부경찰서, 31사단
화순군	374-4423		용봉	522-7752	용봉동, 용흥동(일부), 우산동(일부), 북구형, 전남대
서율보급소	02-313-5962	우산	512-8116	우산동, 중흥동(일부), 문흥동(일부), 두암동(일부), 기화동(일부), 무등도서관, 민비우시장, 전대후문상가	
동부 취재본부	908-8111	중흥	224-6804	계림3동, 중흥동, 우산동(일부), 산수동(일부), 구시형, 광주역, 계림교	
서부 취재본부	276-9200	월곡	961-2339	월곡동, 우산동(일부), 광주여자대학교, 신정동	
중부 취재본부	863-8822	취단	973-2900	일거동, 산림동, 쌍림동, 비아동, 오룡동, 보훈병원, 남부대, 취단지구	
		하남	959-1500	윤남동, 옥서동, 하남공단, 수원지구	
		광산	944-0444	송정동, 소촌동, 신촌동, 우산동, 도산동, 송촌동, 윤수동, 일곡동, 옥동, 광주공화	